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

새보람

SAEBORAM



가브리엘천연공방 아인美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11호

2010년 4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0. 5. 2

<http://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S.I.W.M.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5월 2일 개막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5월 2일 오전 3시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사진-지난 18회 대회 폴코스 출발장면)

세계 휠체어마라토너의 축제, 국제 공인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가 오는 5월 2일(일) 오전 8시,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성대한 막이 오른다.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국제적 명성과 최고의 기록을 가진 국내외 20여개국 600명 이상의 휠체어마라토너들이 42.195km의 풀코스와 21.0975km의 하프코스 및 5km코스에 참가해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특히 5km 종목에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대회의 문

호를 개방하여, 국내의 모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세계적인 경기의 유치를 통한 국내 장애인 스포츠 인재 발굴하고, 장애인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지난 1992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특히 2005년 14회 대회에는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국내 장애인스포츠계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장애인육상연맹(IPC Athletics) 공인’을

획득함으로써, 대한민국 장애인스포츠의 수준을 한껏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참가 선수들의 대회기록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게 됐고, 세계적인 선수들의 참가가 증가해 대회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내 휠체어마라톤 선수들의 국제무대 진출의 활성화의 통로가 마련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김정록 대회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전 세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정을 나누는 마당입니다”며 마라톤 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이 대회를 ‘도전’과 ‘극복’ 그리고 ‘감동’이 담긴 대회로 만들어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큰 울림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관광체육부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KBS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찬한다.

〈2~3면에 계속〉

“달리기 위한 본능, 그 아름다운 도전!”

『제19회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1면 계속)

한편 지난해 5월 10일(일요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8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폴코스부문에서는 출전한 편리 커트(Feamley Kurt, 28)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으로 지난 2006년과 2007년 2회 연속 우승자이며 17회 대회의 준우승자인 커트는 1시간29분49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며 17회 대회 우승자인 반다이크(Van Dyk Emst, 36)에 게 설욕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휠체어마라톤의 역사가 다시 쓰인 날이었다. 폴코스부문에 출전한 한국의 홍석만(33) 선수는 편리 커트와 결승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각축을 벌인 결과,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날 홍 선수의 준우승은 지난 1992년부터 18년을 이어온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 역사상 최초로 한국 선수가 이뤄낸 쾌거였다.

특히, 홍 선수의 완주기록 1시간29분50초는 지난 2007년에 유병훈 선수가 세운 1시간33분

37초의 한국기록을 새롭게 경신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홍 선수의 선전은 얇은 선수층과 부족한 지원으로 국제대회에서 고전하고 있는 국내장애인스포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결승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우승자인 커트와 각축을 벌이던 그의 모습과 우승자와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의 완주기록은 국내휠체어마라톤러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건 홍석만

선수는 “대회전까지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왔기에 좋은 성적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준우승을 차지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오늘의 결과로 한국선수들도 국제대회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며 올해 19회 대회에서는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오늘,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에 전 세계의 휠체어마라톤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누군가의 영광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이다. 지난 1년간 그 누구보다 많은 땀방울을 흘려왔기에 그 무엇보다 갈망하던 ‘챔피언’과 새로운 세계기록의 주인공에 오르기 위해서이다.

대회를 20여일 앞둔 오늘, 세계의 휠체어마라톤러들은 지금 서울을 주시하고 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11호 2010년 4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난 2009년 18회 대회에서 한국선수로는 처음으로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홍석만 선수(가운데)

■ 대회개요

- 대 회 명 :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 슬 로 건 :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 기 간 : 2010. 4. 29(목)~5. 2(일) (3박 4일)
 - ※ 출발식 : 5. 2(일) 07:40~08:00(잠실 올림픽주경기장)
 - ※ 본경기 : 5. 2(일) 08:00~11:00(잠실 올림픽주경기장~성남일대)
- 개 최 지 :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라톤코스(공인코스)
- 참가규모 : 총 20여개국, 5,000명(선수 600명, 임원·자원봉사자 등)
- 대회종목 : 3개 종목
 - － 풀 코 스 : 42.195km
 - － 하프코스 : 21.0975km
 - － 로드코스 : 5km (휠체어육상, 장애인스텐드육상, 비장애인 육상)
- 주요행사 : 의무분류, 코스답사, 개회식, 본 대회 등
- 주 최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 주 관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 협 찬 :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대회종목

종 목	거 리	경기구간	비 고
풀코스	42.195 km	잠실 종합운동장 앞 ↔ 성남	반환점
하프코스	21.0975 km	잠실 종합운동장 앞 ↔ 강남구	반환점
5KM 코스	5 km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순환코스

■ 대회일정

일 자	시 간	주요행사	장 소	비 고
4. 29(목)	09:00~	선수단 입국지원 선수단 입촌	인천국제공항 올림픽 파크텔	입 촌 선수 등록
4. 30(금)	09:00~14:00	한국문화 탐방	서울시내 고궁 등	
	15:00~18:00	풀, 하프 코스 선수 의무분류	선수촌 의무실	의무위원회
5. 1(토)	09:00~12:00	코스답사	잠실-성남	기술위원회
	13:00~17:00	5KM 코스 선수 의무분류	잠실실내체육관 앞 광장	의무위원회
5. 2(일)	08:00~11:00	본경기(출발)	잠실종합운동장 남문 광장	출 발
	11:30~13:00	시상식	잠실종합운동장	폐 회
	18:00~20:00	환송연	올림픽파크텔	
5. 3(월)~	09:00~18:00	선수단 출국	인천국제공항	퇴 촌

■ 경기규칙

- 본 대회는 풀, 하프, 로드(5Km)의 3개 종목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 풀, 하프, 5Km 출발은 3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한다.
- 선수는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지정된 코스 안에서 달린다.
- 선수가 경기도중 타 선수를 고의로 진로방해를 했을 경우 자동 실격하게 된다.
- 선수는 필히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선수는 경기 도중에 넘어졌을 경우 경기진행요원 및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선수에게 유리한 도움은 줄 수 없다.
- 경기 중 휠체어의 수리 및 정비는 경기운영 요원의 도움만 허가한다.
- 선수는 달리는 도중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는 공식의무원 및 경기운영원으로부터 경기 중지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경기를 중지해야 한다.
- 선수는 경기운영요원 및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경기 후에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 의무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T51&T52 & T53,T54

의 무 분 류 표	
SIWM	ISMWSF
Class1	T51=T1/LAT1
Class2	T52=T2/LAT1/[A6,A8]*(/A9)
Class3	T53=T3/LAT2 T54=T/LAT2/(A1)/A2/A3/A4

주요선수(풀코스 부문)

어니스트 반다이크(Ernst Van Dyk)



- ▲1973년생
- ▲국적- 남아프리카공화국
- ▲장애유형-선천성하지절단장애
- ▲최고기록-1시간 18분 27초(2004년 보스턴, 비공인세계신기록)
- ▲휠체어마라톤의 장벽이었던 1시간 20분대를 돌파한 유일한 선수
- ▲2005, 2008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우승
- ▲2009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3위

커트 편리(Kurt Fearnley)



- ▲1981년생
- ▲호주
- ▲2004년 아테네장애인올림픽 마라톤 금메달(1시간 25분 28초)
- ▲2006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우승
- ▲2007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우승(1시간 22분 17초)
- ▲2008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준우승
- ▲2009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우승

홍석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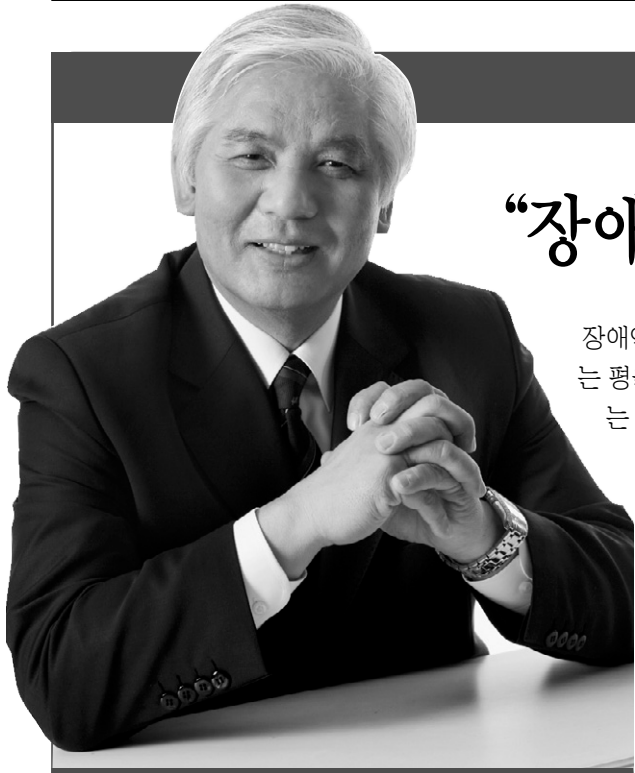


- ▲1975년생
- ▲한국
-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T53 400m 금메달(47.67초, 세계 신기록)
- ▲2009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준우승 (1시간29분50초, 한국신기록)

이유미



- ▲1982년생
- ▲한국
- ▲2007년 오이타마라톤대회 여자부문(하프코스) 준우승
- ▲2008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여자부문(하프코스) 우승



발행인 칼럼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향해 다시 달려시다”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날이 오는 4월 20일(화) ‘30번째 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쓰며 저는 장애인의 날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의 길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습니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고통을 겪

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동지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은 강이 되어 산천 초목(山川草木)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 시행되어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들이 국회에 진출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장애인연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우리는 함께 일구어왔던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 함께 달려온 480만 장애인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 장애인이 살기에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단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이동권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육체적인 장애가 능력의 장애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편견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기회’ 자체도 박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인권유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우리들의 이동권 및 경제활동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LPG 지원제도’는 이제 그 수명(壽命)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480만 동지들의 ‘열정’만 있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낸 것처럼 노력한다면 우리는 보다 행복한 2011년, 2012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 김정록이 480만 장애인동지 여러분의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대장애인당사자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수장으로서 미래의 장애인복지를 선도하는 사명을 간직하며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우리가 꿈에서만 그렸던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2010년 4월 10일
중앙회장 김정록

‘제12회 빛고을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



전국의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12회 빛고을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가 지난 달 26일 개최됐다. (경기장면)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광주 지역에서 열리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중 가장 큰 행사인 ‘제12회 빛고을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가 3월 26일(금) 광주전천후게이트볼 경기장(서구 치평동소재)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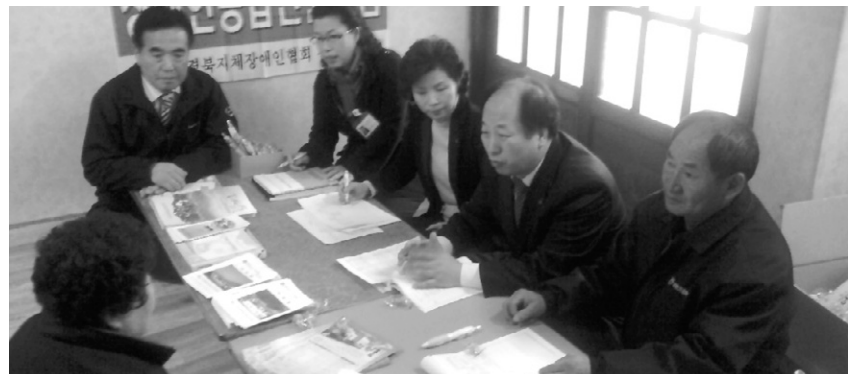
광주지역에서 열리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중 가장 큰 행사인 ‘제12회 빛고을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의 개막식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박광태 광주시장(광주시 장애인체육회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전국 시·도에서 선발된 최강 40개 팀, 총 360여명의 선수들은 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했다.

대회를 주최한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이재홍 회장(대한장애인게이트볼협회 회장)은 “오늘의 대회가 신체의 장애가 결코 능력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진실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선보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우승은 충북 단양의 ‘단고울팀’이 수상했고, 경남 거창의 ‘곰두리팀’과 광주 ‘광산구B팀’이 준우승과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장애인 민원 이동 상담’ 실시



김천시지회 박선하 지회장과 상담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지난 달 25일 실시된 ‘장애인 민원 이동 상담’에서 김천시 남면의 장애인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는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남면 운남리 마을회관에서 남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민원 이동 상담’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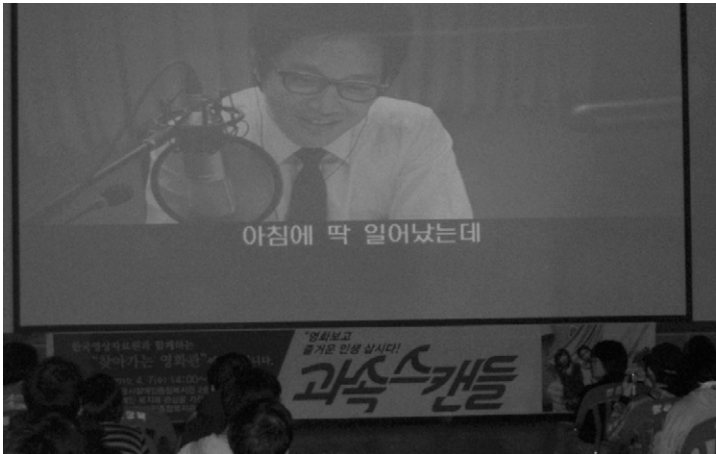
이동 상담은 바쁜 농사일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김천지역의 장애인들에게 각종 복지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장애가 있으면서도 등록절차를 몰라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농촌 주민들에게 장애인 등록을 하면, 각종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전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던 조마면의 김 모씨(여, 71세)는 이동 상담을 통해 지체장애 4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했고, 전화요금이나 핸드폰, 유선TV 요금할인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차현미 이사(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가 지난 4월 1일(목)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찾아가는 영화관’ 성황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7일 실시한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그램에서 정읍지역의 장애인 및 주민들이 영화 ‘과속스캔들’을 감상하고 있다.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나른해지기 쉬운 봄날 큰 웃음과 감동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마련됐다.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복지관)은 지난 7일(수) 복지관 강당에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실시했다. 정읍복지관은 이동권과 편의시설의 어려움으로 문화·여가활동의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가족에게 영화 관람을 통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조로 영화 ‘과속스캔들’이 상영된 이날 행사에는 정읍지역 장애인, 가족, 정읍시민 15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를 주최한 정읍복지관의 박종형 관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건강한 정읍, 행복한 정읍, 소망을 주는 정읍”을 만들자며 이를 위한 정읍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무료기초건강검진’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 이하 유성복지관)은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무료기초건강검진’을 지난 6일(화) 복지관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로 실시된 건강검진에는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180여명의 복지관 이용자들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검진에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협의회 보건·의

료·재활팀 소속 위원 8명과 건강보험공단 7명의 봉사단이 한방(침 포함), 양방, 작업치료(관절가동범위 운동요법 등)를 실시하며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성복지관 윤석연 관장은 “이날 검진을 통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장애인 및 가족은 ‘2차 검진’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유성복지관은 지역 내의 장애인들과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프라인 체험으로 심신을 단련해요”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지프라인 체험’에 참가한 복지관 이용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유정주, 이하 문경복지관)은 지난 3월 17일(수) 문경시 자연휴양림이 위치한 불정산에서 ‘지프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주)지프라인 문경 개업 1주년 기념 초청으로 실시된 이

날 행사에는 문경지역의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1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성된 총 9개 코스 1,353미터를 모두 체험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시각장애인은 “첫 코스 출발점에 매달렸을 때는 무서워서 몸이

얼어붙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가이드 안내를 받고 나서는 나름대로 스틸과 재미를 즐기면서 내려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 주부(지체장애)는 “평소 살림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갔다”며 “즐 하나에 매달려 내려오는 동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즐거워했다.

한편, 지프라인(Zipline)은 양 편의 나무 또는 지죽대 사이에 설치된 와이어에 트롤리(trolley, 전자, 전선 등에 달린 작은 쇠 바퀴)를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또는 일종의 레포츠로서, 현재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신나는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에버랜드와 함께하는 ‘나눔 정원’ 만들기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삼성에버랜드(사장 최주현)는 지난 5일(월) ‘제65회 식목일’과 에버랜드 ‘창립 4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기, 이하 용인복지관)과 함께 ‘조경관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삼성 에버랜드의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이날의 자원봉사는 복지관 개관 이래 지속돼온 두 기관의 협력을 돈독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복지관 본관 외부

에 조성된 화단에 ‘오엽송(五葉松)’을 식수했고, 이외에도 복지관 실내화단 조성 및 복지관 앞마당 화단에 꽃모종을 심는 활동들을 진행했다.

이날 자원봉사에 함께했던 최주현 삼성에버랜드 사장은 “나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무척 기뻐다”고 소감을 밝히며 “오늘의 행사를 통해 앞으로 용인복지관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에 용인복지관 정성기 관장



최주현 삼성에버랜드 사장과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정성기 관장이 복지관 본관 외부에 조성된 화단에 ‘오엽송(五葉松)’을 식수하고 있다.

은 “용인복지관과 삼성에버랜드가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10 한국스페셜올림픽 영남지역대회’ 선전

복지관 소속 탁구선수 대회 금, 은 수상



‘2010 한국스페셜올림픽 영남지역대회’ 탁구 종목에서 금·은메달을 획득한 영천시장애인복지관 소속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천시장애인복지관

지난 4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이틀간 열린 ‘2010년 한국스페셜올림픽 영남지역대회’ 탁구부문에 출전한 영천시장애인복지관 대표 선수들이 탁구 부문에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대구광역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355-C 대구지구 제5지역)가 주최하고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관으로 열린 ‘2010년 한국스페셜올림픽 영남지역대회’는 영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발달장애인의 체육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선수단, 운영진 등 총 600여명의 영남장애체육인들이 참가

한 이번 대회는 각 종목별(육상, 배드민턴, 보체, 탁구) 예선과 결승전(9일)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특히 문경복지관의 탁구교실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이명신(26, 지적장애 2급)이 청년부에서 금메달을, 김석호(36, 지적장애 2급)가 성인부에서 은메달의 차지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문경복지관 소속 선수들은 탁구교실 코치(박의식, 영천시생활체육회 소속)의 지도하에 지금까지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협회장배 장애인탁구대회, 경북장애인탁구대회 선발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수상하며 발군의 실력을 뽐낸바 있다.

「장애인연금법안」 국회 통과…32만5천명 연금 수급

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장애인연금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의 수급대상을 중증장애인 일부로 한정된「장애인연금법안」이 지난 달 31일(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전 11시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201명 중 20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사위에서는 기초장애인연금법안에서 '장애인연금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금 수급대상을 '1·2급 장애인 및 3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대상은 18세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장애인본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유형을 가진 사람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령에서는 3급 중복지장애인(2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이 복합된 자)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애인연금의 종류는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

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9만원이다.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 대상은 3급 중복지장애인까지 월 연금액은 9만원~15만원…32만5천명 한정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거쳐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010년 예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즉,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15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7월~12월분으로 편성된 정부예산은 1,519억1,900만원으로 2009년 6월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약 242만명 중에서 32만5천명이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13%에 불과한 수치이다.

7월 장애인연금이 도입될 때까지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반 준비를 하게 된다.

또한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궁금해 할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로 안내

문(Direct Mail)을 4월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자료가 전달된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재산 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를 거쳐야 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본인 금융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1일 국회 본회의 직후 보도 자료를 내고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목) '이명박 정부에 의한 장애인연금 도입은 사기극일 뿐'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장애수당 폐지와 장애인차량 LPG세 금인상분 지원사업 폐지 등을 전제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32만5천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1인당 월 수령금액도 9만원~15만원에 불과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104개의 장애인단체가 모여 장애인연금법 제정운동을 벌여왔던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3월 31일 '장애인연금법 도입에 의미 두고, 법제정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체제 마련에 의의를 둔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애인연금법공투단은 "이제 첫발을 디딘 장애인연금법이 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적절한 대상을 포함하기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설득이 필요할 듯하다. 장애계의 단합된 의지와 사회各界의 협조를 위해 긴 행보를 또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법안이 통과된 후 장애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안」을 평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일



지난 달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안」은 수급대상을 3급 중복지장애인까지로 한정했고, 연금액도 복지부 안에서 대폭 후퇴돼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지난해 11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된 '장애인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 장애인연금법안 주요 내용

①장애인연금 신청자 소득·재산의 범위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인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된다.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어업권, 입목, 체육시설회원권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가 포함된다.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②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먼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번째로 장애등급이 1급과 2급인 사람, 그리고 3급 중 중복지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번째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같거나 적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잠정 선정기

준액은 장애인연금 정책자문위원회와 자문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 말에 발표된다.

③별도로 장애등급 심사 받아야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사람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장애 판정·심사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시하는 장애등급 심사규정을 따른다.

④연금 신청 및 수급자 결정, 급여 지

급 절차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가 속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진단서,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시행 첫 달인 7월은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30일로 하고, 8월부터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맞아

인권위, 장애인 차별관련 진정 통계 발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4월 11일(일) 시행 2주년을 맞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11일 제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 인권위로 접수된 '장애인 차별관련 진정'의 내용과 통계를 지난 8일(목)발표했다.

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왔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간접차별(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광고에 의한 차별(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차별행위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2,778건이며, 그 중 50%인 1,390건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법 시행 이전까지 전체 차별 관련 진정 중 장애 사건이 14%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로, 법 시행에 대한 기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의된 차별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정권, 괴롭힘 등이었다.

한편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진정이 209건(15.0%), 괴롭힘 195건(14.0%), 시설물 접근권

189건(13.6%) 등을 차지했다. 영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 제3조(정의) :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괴롭힘과 같이 사인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은 급증한 반면, 공공기관 등 제도권에 주로 그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고용, 교육, 행정·사법·참정권, 이동교통 관련 진정은 다소 감소하거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교통과 관련한 차별 영역의 진정은 50%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맞아 인권위로 접수된 '장애인 차별관련 진정'의 내용과 통계를 지난 8일(목)발표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설물 접근 등 사회적 활동 수행을 위한 제약과 관련한 진정이 많았고, 정신장애인, 지적·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지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회적 편견 하에 주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누리축제' 개최



'장애인누리축제'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7일(토) 오전 1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2010 Hi Seoul 장애인 누리축제'를 개최한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장애인 행복도시체험, 장애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행복도시 체험을 통해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보조공학기구 전시, 서울디자인센터 Art-Bus 체험, 장애인 이동차량 병원, 서울시 장애인 생상품 판매시설인 '행복플러스가게' 등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장애체험 부스 코너에서는 장애인복지 역사관, 장애스포츠 체험, 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체험, 장애재활존 및 장애인자립존, 사회통합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전시회



전시회에 참여한 김재호 작가의 그림 '자화상'

예술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2010 서울장애인 미술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 개인전·연합전'이 지난 6일(화) 잠실 서울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서울장애인 미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14인의 작가들의 기량과 마음, 생각, 감정, 철학을 시각, 촉각, 청각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전시회는 서울특별시 문화국이 후원하고 (사)한국 장애인미술협회(회장 김충현) 주관·주최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3(화)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전국 20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15일(목) 개소하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국 20개소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에 돌입한다.

어울림센터는 열악한 사회 환경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여성 특화 전문기관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고, 장애여성 특성에 맞게 기초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기관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및 취업알선 등 장애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앞

으로 여성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확대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연차적으로 센터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장애여성의 특성과 다양한 수요를 잘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 국내 최초 ‘보조기구 클리닝서비스’ 실시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목)부터 국내에서는 최초로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 보조기구 ‘클리닝룸(소독·세척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장애인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보조기구는 신체 일부에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어 각종 질병의 감염 예방을 위해 위생·청결 관리의 필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소독·세척 서비스는 이미 유럽에서는 보조기구 대여 전·후에 클리닝룸(Cleaning Room)에서 표준 규정에 따라 세척과정을 거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NHS 산하기관인 ICES에서 보조기구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조기구의 대여 전·후에는 반드시 주정부의 보조기구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기구의 위생·청결관리를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보조기구 대여서비스 시행 초기로서 서비스 공급 확대에 치중해 위생·청결 관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서비스를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 보조기구 클리닝룸(소독·세척실)을 설치하고, 4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직·간접적인 신체적 질환에 의해 감염되는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을 부담해야만 했다.

국내 최초로 제공되는 대여보조기구 클리닝 서비스로 인해 이용대상자인 장애인에게는 질병감염 예방 및 위생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청결한 관리를

통해 보조기구의 내구연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기구 클리닝 룸’(소독·세척실)에서는 휠체어 세척기를 비롯하여 자외선 살균 소독기와 세탁기 등으로 보조기구의 세척, 세탁 및 소독을 하게 된다.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서 대여

서비스를 위해 보조기구를 소독·세척하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보유한 보조기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독·세척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클리닝서비스 이용가격은 수동휠체어 1대 기준 5,000원, 휠체어 1/2크기 미만의 보조기구는 3,000원 등이며, 총 소요시간은 세척 및 살균·소독·건조를 포함한 전 과정에 약 1.5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보조기구의 ‘기부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보조기구를 기부한 장애인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 받은 보조기구는 클리닝하여 필요한 장애인에게 임대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및 일반인들에게 보조공학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보조공학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리닝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02-440-589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문의 :서울특별시 복지국 ☎ 02)3707-8350〉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용 2차원 바코드(보이스아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각장애인, 노인, 저시력자 등을 위해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발간되는 모든 인쇄출판물에 대해서 '인쇄물 음성변환출력용 2차원 바코드(이하 보이스아이)'를 도입했다. 보이스아이메이트(음성출력기) 기기

국립중앙도서관, 인쇄물 음성 변환서비스 실시 음성 변환출력용 2차원 바코드 ‘보이스아이’ 도입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은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 노인, 저시력자 등도 각종 인쇄출판물 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발간되는 모든 인쇄출판물에 대해서 4월 1일(목)부터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용 2차원 바코드(이하 보이스아이)’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시각장애인들이 학습과 독서를 즐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를 활용하여야 가능하였으나, 보이스아이 심벌(symbol)이 삽입된 인쇄물은 종이책을 재 변환하는 불편함 없이, 인쇄·출판과 동시에 소리로 들려주는 스캐너(리더기)만 있으면 종이책

의 내용을 곧바로 읽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국가 정책연구보고서(종이책), 공문서 내용까지도 들려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독서차별을 없애고, 정보접근 기회 제공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정책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나아가 공문서까지도 보이스아이의 적용 범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립중앙도서관은 2011년부터 중앙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도 보이스아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출판계의 참여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장애여성 ‘한지공예’ 교육 과정 지원

경기도가 장애여성의 사회 참여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한지공예’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한다.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회장 신난아, 이하 경기협회)에서 맡아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장애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은 5월 3일 부터 10월 11일까지 24주간 과정이며 수원시 송죽동 소재 경기협회 교육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한지공예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경기도에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한다.

교육생들은 24주 동안 주1회씩 총 72시간과정으로 명함케이스, 잡지꽂이, 경대, 3단 서랍장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한지공예를 배우게 된다. 아울러 한지체험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체험학습도 마련하고 있다. 수료 후에는 작품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25일(일)까지이며 협회를 방문하거나 전화(031-247-3444), 이메일(nice0776@hanmail.net), 팩스(031-247-3442), 우편(수원 장안 송죽동 96-1 수천빌딩 4층)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장애여성의 여가활동이 주로 TV시청 등에 머물러 활동적이지 못했다”며 “이번 교육은 장애 여성의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도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한지공예’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한다.

복지부, '2011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 선정

전라북도, 제주도 선정...2013년까지 9개 센터 설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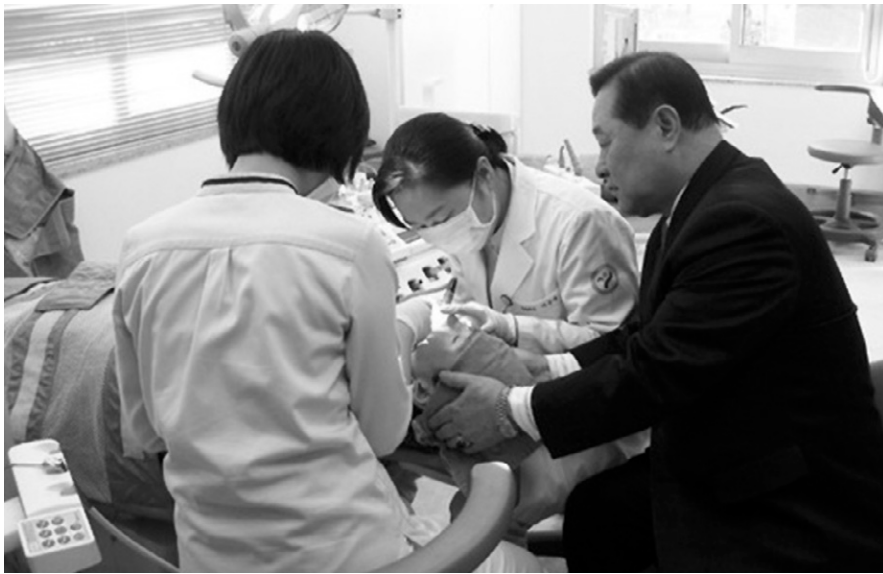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2011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로 전라북도(전북대학교병원)와 제주도(제주도립재활전문병원)를 선정했다.

※ 전북대학교병원: 신축제주재활전문병원: 현재 신축 중이며 신규증축 6층 활용예정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를 수행하는 국내 치과병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05년에 설립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현재 국내 유일(진료환자수: 연간 약15천명)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9년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애인치과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남대학교병원(광주광역시 동구



보건복지가족부는 '2011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자'로 전라북도(전북대학교병원)와 제주도(제주도립재활전문병원)를 선정했다. (사진 -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서 치과진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

소재), '10년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충남 천안시 소재)을 선정하여 현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중에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예산확보 후 예산

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선정된 사업자의 실제 필요한 예산규모에 따라 설비·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필요한 예산은 오는 5월까지 지자체별 신청을 받아 2011년도

정부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앞으로 해당지역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사업, 장애인 진료 전문·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치과응급의료체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009~2010년에 이은 2011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관 선정을 통해, 해당지역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의료와 치과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거점지역에 총 9개의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4〉

전북, 장애인에 '자립금·차량구입비' 융자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과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고 지난 8일

(목) 밝혔다.

이는 생계나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최대 2천만원(연리 3%)까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해주는 것으로, 대상자는 가구별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2인 가족기준 171만7천원이하)로 성년이 '등록 장애인'이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는 또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1인당 1천만원(연리 3%)의 자동차 구입비를 5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빌려줄 예정이다.

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가 해당되며, 희망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문의 : ☎063)280-2114〉

대전, 정신장애인 종합재활시설 건립 도내 첫 시설...8일 준공식 실시

대전에 처음으로 '정신장애인 종합재활시설'이 들어섰다.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호) 지난 8일(목) 오전 서구 우명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소망의 집'에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종합재활시설 준공식'을 실시했다.

재활시설은 총 6억7천여만원을 들여 지상 4층, 건물면적 642.18㎡ 규모로 건립됐으며, 정신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복지를 돕기 위한 작업활동실과 상담실, 강당, 독립주거훈련실, 직업능력평가실 등을 갖췄다.

또한 이곳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대상으로 농자재조립과 자동차 부품조립 등의 직업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인능력에 맞는 작업활동훈련을 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을 주축으로 한 소규모 공장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종합재활시설이 들어선 '소망의 집'은 한 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훈련기관으로 위탁받아 3년째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문의 : ☎042)600-3114〉

인천,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무료 이사서비스



인천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이사서비스'를 실시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는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이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3월 22일(월) 밝혔다.

오는 5월부터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없는 36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 '저소득층 무료 이사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이 인천시 안에서 이사할 경우 인천시가 이사업체의 도움을 받아 인천시내 이동 시 포장, 운송 등 이사서비스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이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세대는 이사에정일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향후 적극적으로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문의 : ☎032)440-2114〉

장애인 접근성 표지의

국제 및 국내 장애인 접근성 표지의 의미는 '장애인'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특정 장소 또는 건축물, 시설로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즉 '장애인의 접근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접근성 표지의 의미'에 대하여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그 의미와 사용법을 지면을 통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휠체어 마크로 잘 알려진 국제접근성표지 'ISA(Intem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는 푸른색 바탕에 흰색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ISA는 파란색의 사각형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정형화한 흰색의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다. 다양한 형태의 도안에 대한 사람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통일된 접근성표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RI는 하부위원회인 ICTA가 접근성표지 선정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국에서 사용되어지는 표지를 통일하여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목적

이 약간 다른 그 의미는 동일하다.

둘째, 'ISA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자. ISA의 의미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는 세계공통의 접근성 표지"이다.

따라서 이 표지를 사용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로의 접근성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표지는 휠체어장애인만을 표시하는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그러나 이 표지의 의미를 단순히 장애인, 특히 휠체어 장애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RI가 ISA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을 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 표지는 우리들의 심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별도의 표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RI에서는 별도의 표지를 사용할 때에는 ISA와 병용할 것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표지는 세계시각장애인 연합회(WBU, World Blind Union)가 1984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한 설립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 표지는 수필 또는 잡지 모두



시각장애인을 나타내는 국제표지



청각장애인을 나타내는 국제표지

국제 및 국내 장애인접근성표지



ISA(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 ISO 7001(Public Information Symbol)



Disabled Access(KS A 0901 Series)

이는 국제표준 <ISO 7001(공공정보 표지)>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 표지의 저작권은 국제재활협회(RI)의 하부위원회인 보조기기주택교통국제위원회(ICTA)가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2004년도에 제정한 <KS A 0901 Series>에 이와 동일한 의미의 접근성표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의미와 사용법 등을 소개하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색상에 대하여 RI와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에서는 '흑색'과 '백색'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으나 <ISO 7001>에서는 미국 연방표준 595B의 컬러 넘버 15090의 '파란색'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흑색과 백색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보이지 않았다.

우선, ISA의 제정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ISA가 제정되기 전인 1969년 이전에도 접근성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도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

을 위해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작업을 하였다.

특별위원회에는 다양한 나라와 분야별로 다채로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에서의 선정기준은 첫째, 애매하지 않아야 할 것 둘째, 쉽게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셋째, 적당한 거리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넷째, 재질, 크기 등 작성이 쉬워야 할 것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된 표지는 1968년 덴마크의 수잔 코페드(Susanne Koefoed)가 디자인 한 것이었으나, 그 표지의 소유권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학생연합이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생연합은 "세계의 장애인을 위해 기증한다"라고 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그래서 RI는 1969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이 표지를 국제접근성표지로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한 국 표 준 으 로 기 술 표 준 원 에 서 DA(Disabled Access)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제접근성표지와는 도안

에 또는 보행용에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다만, 색상은 푸른색 바탕으로 흰색의 도안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표지역시 세계 청각연맹(World Federation of Deaf, WFD)이 1979년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채택되어 1980년부터 일반에 소개되어 각 나라에서 정기간행물이나 포스터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농아인이 통역 그 외 서비스를 하는 장



접근성표지 변형이 심각한 사례

국제 및 국내 접근성표지 오용사례 1

올바른 사용법



바탕색 파란색이 아니며 표지의 팔이 없음. 화살표에 따른 방향변경은 양호함



팔이 없음



바퀴가 없음



팔이 없으며, 아래 수평바가 있는 것은 휠체어 리프트설치를 의미함



사각형 푸른색 바탕에 도안을 해야 하며, 방향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보아야 함

국제 및 국내 접근성표지 오용사례 2

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시각장애인표지나 청각장애인표지는 우리나라에는 별도로 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히 이 표지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세계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ISA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다. 우선 이 표지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는 곳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조건충족은 건축물을 예로들면, 각 나라별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세부기준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다. 현관의 경우에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 단차나 계단이 있을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출입구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유효폭을 두어야 한다. 작은 회전문일 경우 별도의 출입구를 병설할 것, 실내외를 불문하고 계단을 대신하거나 계단 옆에 경사로를 병설할 것, 화장실 설치기준, 엘리베이트 설치기준 등이 있어 각각의 시설물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만 이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표지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일반인들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그 표지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법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이 표지의 본래의 의미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 표지가 붙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는데 그 바로 앞에 계단이 한 두단 있다든지 출입구를 통과하더라도 화장실 내부의 폭이라든지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데 표지의 잘못사용으로 혼란을 가중시켜 더 힘들게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ISA를 표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ISA의 의미를 오해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지체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국내에서 아무렇게도 않게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각성을 관찰부처나 당사자들이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표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국가의 법규범이지만 그 위반에 대해서는 이 표지를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시설



접근성표지와는 바탕색상, 바탕모양, 표지도형의 모양, 방향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안을 변형해 만들어 내어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

국제 및 국내 접근성표지 오용사례 3

주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편의시설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법규범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 그 오용사례 1,2,3>에서 사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잘못 사용된 사례들은 민간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국립 또는 공립박물관 등의 건축물에도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변형뿐만 아니라 경사로표지라든지 휠체어리프트 표지 등을 사용할 때에는 훨씬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시설이 없음에도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혼란을 초래하여 보행약자의 이동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접근성표지의 본래 의미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접근성표지가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때, 그 내부의 편의시설의 각각의 설비들이 얼마나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을지는 현장실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접근성표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없다면 그 이용당사자 단체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큰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잘못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부분적이 아닌 전반적인 접근성표지 사용의 잘못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는 바이다.

기사제공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
홍현근 팀장



바뀌지 않는 장애인의 삶. 해답은 매니페스토!

지장협,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 전국적으로 개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규달)는 지난 3월 23일 (화) 이룸센터에서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을 지장협 16개 시·도 협회 중 처음으로 실시했다.



서울협회의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3월 30일 경남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 김준식 경남협회장 등이 김두관 도지사 출마예정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월 30일 전북에서 열린 '전라북도 매니페스토 발대식'에서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이 김정록 중앙회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충청남도 매니페스토 발대식이 3월 31일 오전 11시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4월 5일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개최한 매니페스토 발대식에서 부산협회 김광표 협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지방선거의 승리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4월 7일 열린 '인천 매니페스토 발대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과 추송근 인천협회장, 인천지역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8일(목) 열린 충청북도 매니페스토 발대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이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장애인 매니페스토의 장으로 만들자고 주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매니페스토 발대식 (4월 8일)

지난 2009년 11월, 여의도에는 '장애연금의 현실화', 'LPG 지원 유지'를 위해 1만 2천명의 장애인당사가 모인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여의도는 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국회로 전하기 위한 1만 2천명의 절박한 목소리로 뒤덮였다.

하지만 결국 '장애연금'은 아쉬움을 남긴 채 통과됐고, 'LPG 지원 제도'는 이제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보아도, 또 아무리 피땀 흘려 투쟁해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장애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 놀음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논의하고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김정록 중앙회장은 바뀌지 않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인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난 1월 28일 경주에서 개최된 '2010년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

회'에서 밝히며 "장애인 매니페스토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인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을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오는 6월 2일(수)실시될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협회에서 개최되고 있는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은 선거에 출마하는 장애인당사의 지방선거 도전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이 장애인들의 욕구를 정책화하며 선거 후에는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지장협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은 지난 달 22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30일(화) 경남, 전남, 31일(수)충남, 4월 2일(금)에는 전남, 5일(월) 부산, 7일(수) 인천, 8일(목) 충북, 광주에서 열렸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 순회하며 장애인당사자 입후보자 및 회원들을 격려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 장애인의 삶이 이토록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은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그간 장애인들이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정록 중앙회장은 "장애인당사자의 한 표, 한 표가 모이면 지방권력, 국회의원 심지어는 대통령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480만 표라는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

학연, 지연, 연고, 정치적 성향 모두 버리고, 오직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후보에게 소중한 우리의 한 표를 던지자"고 당부하며 회장으로써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09년 9월 30일 열린 가브리엘 천연공방 '아인美' 오픈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 김혜경 원장, 홍정욱 의원 등이 테이프커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향긋한 비누향과 함께 장애인의 꿈이 영글어 가는 곳. 그곳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시설인 가브리엘작업활동시설(원장 김혜경)이 운영하고 있는 가브리엘천연공방 '아인美'이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에 위치한 가브리엘천연공방 '아인美'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오픈했다. 가브리엘작업활동시설은 지난 2007년도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0년 10월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이 이루어질 현실적 배경에 처해 있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은 현재 5가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2가지(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유형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가브리엘작업활동시설은 '보호작업장'으로의 상향 재편을 위해 보호작업장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근로장애인의 추가선정 및 급여상향 조정이 필요하여 작업장의 생산수익금의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던 중 누야하우스와 연계되어 천연비누와 천연화장품 사업을 알게되었고, 비누생산 작업이 중증장애인들이 간단한 교육을 통해 쉽게 접근하여 생산이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창업사업에 매우 유리하다는 판단에 천연공방 '아인美'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특히 노원구 국회의원 홍정욱 의원을 지원으로 인테리어 및 생산기자재 구입 및 훈련생 천연비누 생산교육에 노원구청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천연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누야하우스(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시스템인증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기업 및 화장품 전문업체의 제품과 손색이 없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력업체를 통한 전문적 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한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있는 '아인美'는 현재 공방에서는 천연비누, 화장품 전시판매 뿐만 아니라, 천연화장품/비누등의 공방교육을 통해 직접 만들어가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답례품, OEM(주문생산), 등의 대량주문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천연비누/화장품을 가정에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원재료도 판매하여 천연제품의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 학교, 유치원, 기업, 일반인 등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아인美'를 운영하고 있는 가브리엘작

업활동시설 김혜경 원장은 "아인美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일반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지역사회 통합의 기회를 높여 보다 독립적인 사회생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사업의 목적을 밝혔다.

이어 "아인美에서 생산하는 천연비누와 화장품은 제품 하나하나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등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검증된 원료들로만 만들어져 믿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음호에 계속〉



향긋한 비누내음과 함께 희망찬 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아인美'의 근로장애인들



생산 후 공방의 매장에 진열되고 있는 아인美 표 천연비누



가브리엘 천연공방

- 상 호 : 아인미(공동상표 사용계약) '가브리엘 천연공방'
- 사업내용 : 공방프로그램 진행(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제품판매(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세제, 답례품, 선물용품)
- 대 상 : 천연제품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단체 및 개인 환영)
- 운영시간 : 월~금, 09:00~19:00 (공방프로그램 이용 시, 오후 5시까지 신청 가능)
※ 미리 연락주시면 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 연 락 처 : (TEL)02-930-0783, 951-9707/ (FAX)930-0784
<http://cafe.daum.net/gabrielnaturalshop>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기간별 주요제한 및 금지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 이하 선관위)는 지난 3월 10일 (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예시집>을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관련 위반사례, 선전물 배부·첩부 등 관련 위반사례, 집회·행사 관련 위반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본지는 사례집의 내용 중 ‘기간별 주요제한 및 금지사항’의 내용에 대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간별 주요제한 및 금지사항’에 대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사진-지난 2006년에 실시된 5.31 지방선거 선거홍보 사진 입선작 ‘빛속 꼭지점 댄스 유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상시제한 행위

- 기부행위의 제한·금지(공직선거관리법 제 112조, 이하 §112)
-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 행사에 금품 등 제공 금지(§112)
- 축의·부의금품 등의 제한(§112)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113)
- 사전선거운동 금지(§254②)
-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 ①1,2,3)
-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86⑦)
-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87②)
-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89①)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금지(§95)
- 허위논평·보도의 금지(§96)
-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110)
- 당원단합·수련 등 당원집회 개최장소·고지의 제한(§141)
※2010. 5. 3부터 6. 2까지는 당원집회 개최 금지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230)
-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244)
- 허위사실 공표 금지(§250)

2.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9. 12. 4. ~ 2010. 6. 2.)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

행위 금지(§89②)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93①)

3.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0. 2. 2. ~ 6. 2.)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140①·②)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4.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2010. 3. 1. ~ 5. 19.)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137의2①)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함),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안된다.

5.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2010. 3. 4. ~ 5. 19.)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137)
→ 정당의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총 70회 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중에는 광고할 수 없다.

※광고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중앙당외의 당부는 광고할 수 없다.

6.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0. 3. 4. ~ 6. 2.)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93②)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103⑤)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111)

7.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0. 4. 3. ~ 6. 2.)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8.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0. 5. 3. ~ 6. 2.)

- 당원집회 · 당원교육 금지(§141①)
→ 소속당원의 단합 · 수련 · 연수 ·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9. 선거기간중(2010. 5. 20. ~ 6. 2.)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 ①5·6·7호)
-5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호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호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 ·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87)
-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91)
- 저술 · 연예 ·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92)
- 방송 · 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94)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99)
- 녹음기 · 녹화기 등의 사용 금지(§100)
- 타 연설회 등의 금지(§101)

- 야간연설 등의 제한(§102)
- 각종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금지(§103)
- 입당권유, 연설 · 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금지(§106)
- 서신 ·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109)
- 정강 · 정책의 신문광고 금지(§137)
- 정강 · 정책의 방송연설 금지(§137의2)
- 정강 · 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 · 배부 제한(§138, §139)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금지(§144①)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145)
→ 정당은 선거기간 중 해당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 성명 · 사진 · 경력 등을 게재한 간판 · 현판 ·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10.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 각까지(2010. 5. 27. ~ 6. 2. 18:00)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 · 인용보도 금지(§108①)

11. 선거일(2010. 6. 2.)

-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59, §254①)
- 투표마감시각(18:00)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167②, 241①)

12. 선거일 후 답례금지(§118)

13. 기타

- 인쇄물 · 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원 모집 금지(§62⑧)
-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 · 비방금지(§82의4②)
- 선거운동의 권유 · 약속을 위한 문서 등의 배부 · 징구 금지(§93③)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 제한(§98)
- 행렬 · 연호행위 등 금지(§105)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 · 날인 받는 행위 금지(§107)
-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166의2)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Q&A

"정당 후보자간 단일화 및 단일후보의 지지 표방에 대해"

Q)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정당 후보자간 단일화 방식에 대하여
가. 다른 정당 후보자간 선거인단 모집방식으로 실내에서 직접 투표를 통한 단일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다른 정당 후보자간 위와 같은 방식과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
2. 정당 간 한 곳의 선거구에서 한 정당의 후보로 단일화 한 경우 단일화가 된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단일화에 참여했던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선전할 수 있는지(외벽 현수막, 예비후보자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3. 본 선거에서 단일화가 된 후보자가 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같은 방법으로 선전할 수 있는지

- A) 1. 질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인단 모집이나 투표 등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그 밖의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 ·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 여론조사 방법으로 할 경우 같은 ‘법 제108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지하철역 구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 통상적으로 지하철역 입구 계단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제 1항 제2호’ 단서의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동 장소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인사 및 명함 배부)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귀문의 경우 지하철역 입구 첫 계단부터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되며,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유권자의 지지 영상 방영"

Q) 선거유세차량에 부착된 영상기기를 통한 홍보 동영상을 선거운동 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홍보영상 제작 과정에 지역 유권자를 출연시켜 지지 발언 또는 지지하는 이유 등을 녹화하여 영상으로 거리유세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개정된 선거법에는 연설회 제도가 삭제되었는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거리 유세 시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지지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의에 있어서 단순 지역 유권자는 출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후보자가 추천한 선거운동원의 지지 발언 또는 지지 이유 등을 밝힌 홍보영상을 이용한 거리 유세는 가능한지요?

A) 먼저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권자가 출연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은 녹화기로 방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그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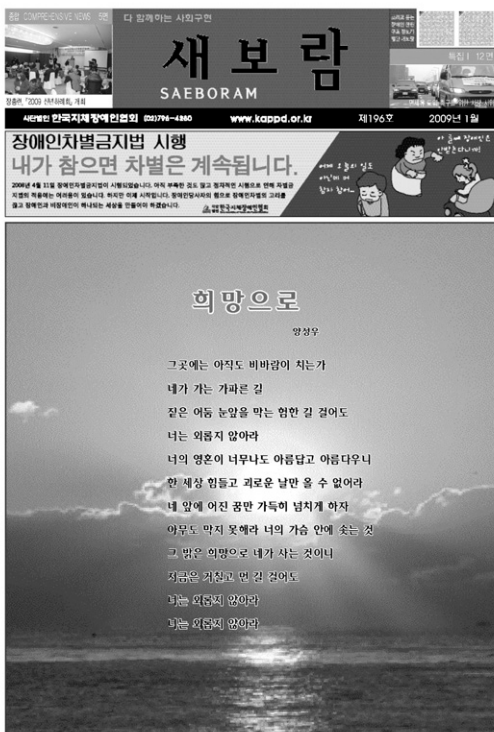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센터 ☎ 02)503-1790~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년 달라지는 새보람

국내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1990년 3월 1일 탄생한 월간 새보람이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창간 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보람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480만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장애인복지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신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

중앙회 홍보협력팀 이현일
02)2289-4381
hambaknun30@nate.com

■ 2010년 달라지는 새보람

① “독자에, 독자에 의한, 독자를 위한 신문”

–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새보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전국의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새보람이 진정한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해 주십시오. 세상사는 이야기, 정책 비판 및 제안을 비롯해 그 어떤 주제도 새보람은 환영합니다. 원고는 매달 8일까지 이메일(hambaknun30@nate.com)이나 팩스(796-4281)로 보내면 되고, 기사로 채택되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② “현장속으로...전문적인 정보 전달”

– 장애계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철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독자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③ 사람들의 이야기

– ‘people’ 코너를 신설해 장애인의 소소한 일상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세상사는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④ “메일링 서비스 실시”

– 새보람은 매달 15일 발행되는 월간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집까지 배송되기까지는 약 일주일(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좀 더 빨리 새보람을 보고 싶으신 독자께서는 새보람 ‘메일링 서비스(메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링 서비스 신청 : 이메일(hambaknun30@nate.com)
팩스(796-4281)



민원상담 Q&A



-기사제공-

중앙회 이춘희 여성정책팀장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
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장애인당사자분은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질문사항을 올
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
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2289-4320

“하이패스단말기 구입에 관해...”

Q)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인데요. 현재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지문인식)’ 구입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
기 사용은 4월 15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하이패스 차량을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단말기가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와 다른 점은 지문인식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전 장애인 본인의 지문을 찍으면 50%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니다.

가격은 15~20만원 선입니다.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를
위해 전국 대리점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2)831-0293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등록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요”

Q) 지체장애3급 생활보호대상자로 수급권자입니다. 우리 아들이 전문대 다니고 있다가 군복무중입니다. 올8월에 제대하고 나면 2학기부터 복학할 예정입니다.

등록금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00만원인가 얼마인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나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400만원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장학금이 아니라 저소득·취업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해외취업에 소외되었던 저소득·취업애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18~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참여하거나, 취업알선을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연수비 본인부담금 등 1인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취업지원1팀에 신청서, 지

원대상자 증명서류, 공인어학성적증명서 등 신청서류 일체를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의 경우에는 한
학기 최대 220~230만원 장학금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신 후 다니시는 학교에 신청서,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학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이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http://www.studentloan.go.kr> 1666-5114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택배직	종로구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동대문	60대이하	무관	지하철을 이용한 택배업무	약 86만원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2	단순직	현수막왕국	충정로	무관	무관	현수막 조립 및 생산보조업무	약 86만원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3	단순직	우보장	혜화동	무관	무관	전단지 부착업무	일급 2만원	없음	2289-4322	손가람
4	미화직	티지엠	의정부	60대이하	여	건설현장 미화업무	약 90만원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5	서비스직	메디엔젤	중구	50대이하	여	전화상담업무	약 86만원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6	단순직	월드리싸이클	경기도 하남	30대이하	남	컴퓨터 및 TV 분해 및 분리작업	약 90만원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7	단순직	경민사	중구	40대이하	여	미싱업무 (청바지라벨박음질)	약 140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8	단순직	경민사	중구	40대이하	여	라벨작업 및 실밥제거 포장업무	약 130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2010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폐막…한국 종합 18위

이명박 대통령, 장애인 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2010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컬링 대표팀과 캐나다 대표팀과의 결승전 장면(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밴쿠버 장애인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전 세계 44개국의 장애인 선수 503명의 꿈과 열정으로 뜨거웠던 ‘2010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가 지난 달 22일(월)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의 5개 전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명의 선수를 파견한 한국 대표팀은 동메달 1개 종합 22위를 목표로 삼았다.

알파인 기대주였던 한상민(31.하이원)과 노르딕 메달 후보 임학수(21.하이원)가 악천후 불운과 정상급 선수와의 근소한 기량 차이로 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목표 달성에 암운(暗雲)이 드리워졌다. 하

지만 컬링 대표팀이 북유럽과 북아메리카 강국들을 연파하고 결승전에 올라 값진 은메달을 따내면서 종합 18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김우성 한국 선수단장은 “모든 종목에 출전한 것이 처음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이번 대회는 다음 패럴림픽을 위한 준비과정이며 무엇을 준비할지를 알려준 뜻 깊은 대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의 우승은 러시아가 금메달 12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공

동 6위에 올랐다.

열린 대회 최우수선수인 황연대 성취상'의 주인공은 일본 아이스슬레지하키 주장 엔도 다카유키(32)와 캐나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베테랑 콜렛 보고니아(49, 여, 캐나다)로 선정됐다.

한편 「2010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의 대표 선수들은 입국 이틀 후인 지난 3월 25일(목) 청와대 영빈관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은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에서 불굴의 투혼으로 대회전 목표를 초과달성한 ‘종합 18위(은메달 1개)’를 차지하며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

준 선수단의 강인한 장애극복 의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찬에는 결승전에서 캐나다와 명승부를 연출하며 값진 은메달을 획득한 휠체어컬링팀을 비롯한 국가대표선수단 46명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장향숙 IPC 집행위원 등 주요인사를 포함한 총 87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은 “이번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은 역대 최대의 선수단이 파견됐고 선수들의 투혼으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한 뜻 깊은 대회였다”고 소감을 밝히며 “장애인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장애인체육인의 역량강화를 통해 차기 대회에서 보다 큰 선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히 아이스슬레지하키팀 주장 한민수, 휠체어컬링팀 주장 김학성, 노르딕스키 박윤배 가이드 등은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소감을 발표하며 동계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재정지원강화, 장애인실업팀 창단을 위한 제도적 지원, 동계 훈련장 건립 등에 관해 건의사항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석창우 화백이 그린 김연아 선수는?

30일부터 제2회 국제누드드로잉 아트페어
김연아 선수 역동적 포즈 담은 작품들 전시



석창우 화백

근로자 문화제 및 제4차 전국장애인근로자사진촬영대회'에서 참가자들을 모델로 퍼포먼스를 시연한다.

또한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안산 하늘정원 갤러리에서 열리는 기획전 '한국의 멋'과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2010년 한국크로키 정기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석창우 화백은 지난 1984년 감전 사고로 인해 두 팔을 잃은 후 서예와 그림에 입문해 서양식 크로키와 동양화를 결합한 서예크로키라는 독창적 화풍을 확립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석창우 화백의 제27회 초대 개인전 '2010 제2회 국제누드드로잉 아트페어'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전시관 전관 3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인전에는 석창우 화백이 그린 김연아 선수의 포즈 및 군상 작품 등 20여 작품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석 화백은 오는 5월 1일 서울 여의도공원 사모정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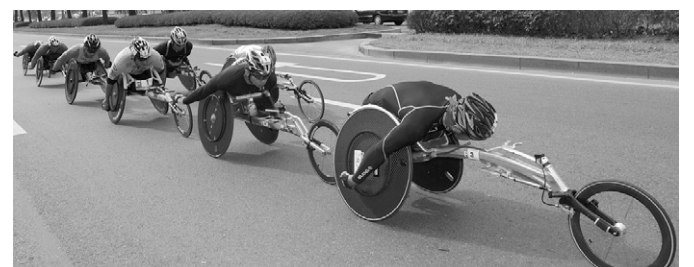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올해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을 위해 '체육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지난 3월 23일(화)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20.2%인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올해 25%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지역 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 40만20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중증(9만9000명), 기초수급(5만1000명), 노인(13만5000명)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평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다.

시는 이들 소외계층의 체육부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콜센터(1577-7976)에 전화를 걸면 장애인체육 전문가와 체육 정보, 운동참여, 지도자 파견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상담을 하면 장애인전문 생활체육 지도자가 현장을 찾아와 운동지도를 해준다. 또 생활체육 교실이나 여가 및 레저프로그램 참여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종목별로는 배드민턴, 피트니스,



서울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확대 정책'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은 경기용 휠체어 등 고가의 장애인용 운동용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국내 최대 장애인스포츠 대회인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파크골프, 수상스키 등이다.

또한 장애인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고가의 운동용품을 구입하기 어려워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장애인들에게는 장비를 구입해 '무상임대'해 주는 사업도 새로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 종목 창단 및 운영, 천사봉사단 등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도우미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또 자원 봉사단 구성·운영을 통해 장애인 체육활동 도우미 인력을 확보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대회개최 및 참가 등을 상시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ssad.or.kr) 또는 다산콜센터(120),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콜센터(1577-7979), 서울시 장애인체육팀(2171-2242)로 문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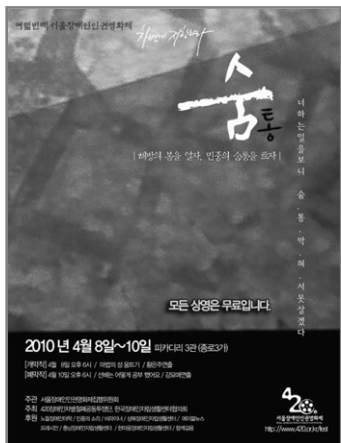
장애인인권영화제 8일 개막...23편 무료상영

서울 종로 피카디리 영화관서 10일까지 열려

장애인당사자의 눈으로 자신이 직접 만든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열리는 '제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서울 종로3가 피카디리 3관에서 지난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3일간 열렸다. '숨통'을 슬로건을 내건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마법의 성 유프기(황은주 연출)'를 비롯한 19편의 당선작과 4편의 특별상영작 등 총 23편이 관객을 맞았다. 특히 관람객들은 상영작 전편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었다.

개막작인 '마법의 성 유프기'는 장애를 가진 연출자 자신이 집을 얻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을 담았고, 폐막작 '선배는 어떻게 공부했어요?(강묘애 연출)'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다뤘다.

이외에도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도 정신병력



'제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서울 종로 피카디리극장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사진제공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집행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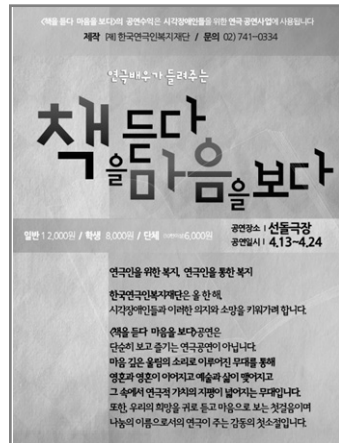
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은하 씨의 이야기를 다룬 '꿈많은 은하(서초열린세상 연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50일간의 노숙투쟁의 과정을 담은 '시설장애인의 역습(박종필 연출)' 등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작품들과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웰마의 이야기 '달콤한 한국, 씹쓸한 한국공장' 등도 선보였다.

이밖에 '연대의 힘'이라는 타이틀로 '기타(其他/Guitar) 이야기', '당신과 나의 전쟁' 등 투쟁사업장과 재개발의 문제점을 다룬 장·단편 특별상영작 등이 상영됐다고, 9일 오후 2시에는 장애인미디어교육의 현황과 진단, 제작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출처-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극 <책을 듣다 마음을 보다>

17~24일까지, 시각장애인 개인 및 단체는 무료 관람



'책을 듣다 마음을 보다' 포스터. (사진제공 - 한국연극인복지재단)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사장 박정자)은 오는 13부터 24일(토)까지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극 '책을 듣다 마음을 보다'를 무대에 올린다.

'책을 듣다 마음을 보다'는 정미경의 소설 '밤이여, 나뉘어라'와 김애란의 소설 '달려라, 아

비'를 청각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 연극화 한 것으로, 비장애인 관객은 물론 시각장애인들까지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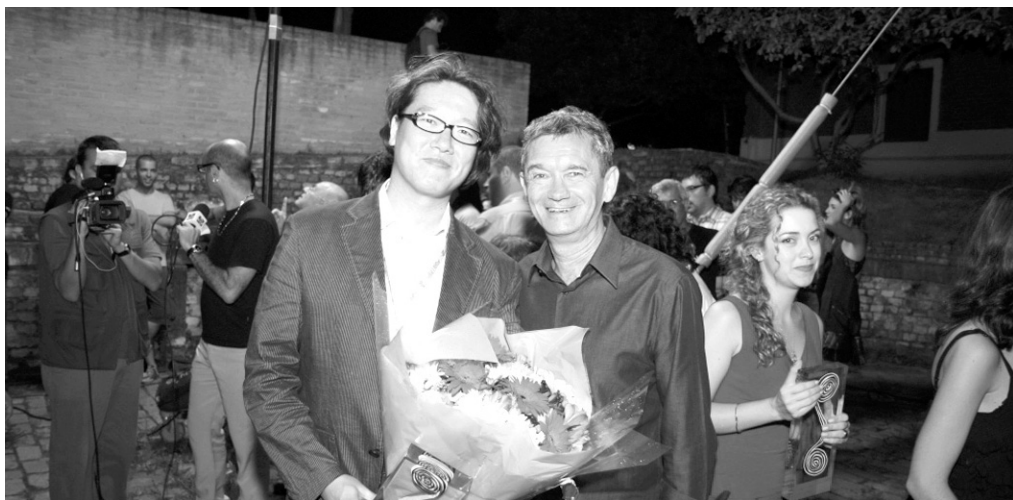
'밤이여, 나뉘어라'는 13일부터 17일(토)까지, '달려라, 아비'는 20일부터 24일까지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월~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펼쳐진다.

관람료는 일반 12,000원, 학생 8,000원, 10인 이상 단체 6,000원이다. 시각장애인 개인 및 단체는 무료로 연극을 관람할 수 있다.

'책을 듣다 마음을 보다'의 연출은 김지원, 엄경환씨가 맡았으며, 엄경환, 반혜라, 박혜진, 김인수, 최희영, 김용선, 반혜라, 박혜진, 최승일, 김창배 등 10명의 배우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극을 들려준다.

〈출처 - 에이블뉴스〉

영화 '섹스볼란티어', 해외영화제 잇단 러브콜



지난 2009년 11월 열린 상파울루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섹스 볼란티어'

오는 4월 22일(목) 개봉하여 뜨거운 논란을 일으킬 영화 <섹스볼란티어(감독:조경덕/제작,배급:아침해놀이)>가 해외 우수영화제에 잇달아 초청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격적인 주제로 장애인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영화 <섹스볼란티어>가 2009 상파울루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는데 이어 올해 4월에만도 4개의 해외영화제들로부터 잇단 초청을 받으며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국내에 첫선을 보인 <섹스볼란티어>. 과격적인 제목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조경덕 감독의 끈질긴 취재에서 나온 실제 이야기로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봤지만

부정해왔고 금기시해왔던 장애인의 성(性)을 화두로 한 작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 초청받는 영광을 누린 <섹스볼란티어>는 오는 4월 9일에 열리는 휴스턴 국제영화제 레미상에 노미네이트, 4월 15일에 열리는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공식경쟁부문에 초청되어 수상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리스 독립국제영화제와, 킬월드영화제에도 초청받아 그 작품성과 화제성을 실감케하고 있다.

세계 우수영화제들로부터 잇단 러브콜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스볼란티어>는 오는 4월 22일 개봉하여 장애인들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를 들춰냄으로써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의 시와 함께 봄을 느껴보세요

봄으로 오시는 이여

글 이병철

봄보다 먼저 봄으로 와서
내 안 깊게 잠든 봄을 깨우는 이여.

온 몸 활짝 봄으로 열어
아침 강의 물안개로 피어나고
마른 땅 촉촉이 적시는 보슬비로도 내리며
맑은 바람으로 불어와 꽃망울 버는 가지 간질이다가
양지 따의 환한 별살로 내려 봄 싹 푸르게 물들이며
온 사방에 들불처럼 봄 신명 지피는 이여.

삼동의 한 복판부터 날마다 서성이다가
봄보다 먼저 봄으로 와서
내 안 깊게 잠든 그리움을 깨우는 이여.

먼저 꽃망울 여는 저 매화
진눈개비 몰아치는 꽃샘추위에 어찌라고
바람 없이도 남김없이 떨어져 내리는 저 눈 시리 꽃잎들을 어찌라고
온 밤 지새워 핏빛 울음 쏟아내는 목신 저 소쩍새는
또 어찌라고

봄보다 먼저 봄으로 와서
생애 마지막인 듯 이 봄을 앓게 하시는 이여.

이병철 작가님은 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생태귀농학교 교장과 생명평화결사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시집과 산문집을 펴내는 등 작가로서의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권영식의 '즐거운 디카세상'

칼라 플래시 촬영(2부)



곧 올 것만 같던 봄소식이 꽃샘추위와 늦은 폭설 속에 잠겨 버리더니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소식으로 계절을 느낄 여유도 없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버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청춘을 불사르던 장병들이 서해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침몰된 선체를 인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칼라 플래시 촬영(2부)

이번 호는 지난 호(208호)에서 다루었던 '컬러플래시 촬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플래시 촬영의 원리는 장시간 노출 즉, 셔터로 셔터가 열려 있는 시간 동안 플래시로 그림을 그리는 것 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중간 중간에 색필터를 바꿔주면서 컬러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촬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 카메라, 릴리즈, 플래시 그리고 플래시를 이용하여 색을 입힐 색필터 또는 셀로판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컬러필터를 구하지 못하거나 셀로판지를 이용한 촬영이 불가능하다며 색이 없이 플래시 고유의 광원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필자는 지난 호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METZ 45 CL-1 플래시'에 'METZ 전용 컬러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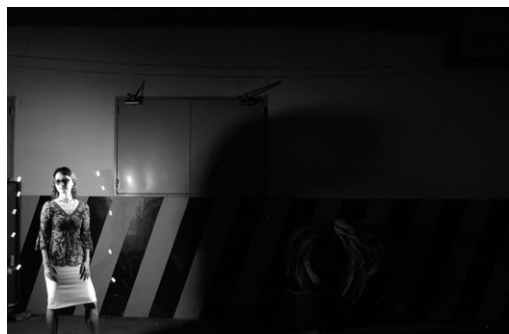
METZ 45 COLOR FILTER

METZ 플래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손에 잡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 잡고 필터 교환이 용이

하기 때문이죠. 카메라 헤드에 장착하는 일반 플래시의 경우 한 손으로 잡고 플래시를 터트리기 매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용 필터가 있는 플래시도 드물더군요.

이렇게 플래시가 준비 되었으면 장기간 노출에도 빛이 스며들지 않을 어두운 공간을 준비하고 삼각대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단단하게 고정한 후 모델 또는 연출자가 이동할 동선을 감안하여 앵글을 설정합니다.

초점을 설정한 후 AF 모드에서 M 모드로 설정을 변환하여 실제 촬영 시 AF작동 하는 것을 방지 합니다. 노출은 감도 100~200에서 조리개 8~11 정도 세팅하면 되고 테스트 촬영을 진행하면서 노출을 조절 합니다.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 촬영

준비가 되었으면 촬영 공간의 불을 끄고 테스트 촬영을 진행합니다. 조명이 겹치지 않게 플래시를 터트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런 촬영이 가능한 것은 조리개를 설정하면 일정거리 이내에만 자동 발광하는 플래시의 원리를 이용 한 것으로 GN/f(조리개)=m(거리)공식에 따라 가이드 넘버 45의 플래시를 조리개 8로 설정 한다면 5.6미터 이내에서는 플래시가 노출 오버가 안되게 늘 발광이 가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플래시가 오버랩 되어 노출이 오버가 된 이미지

적당한 노출 시간은 없지만 많은 양의 플래시를 조사하기 때문에 수치로 말하기 힘은 적당한 때에 셔터를 닫아 주어야 합니다. 위 사진의 경우 플래시를 많

이 조사 하였고 오버랩 된 부분도 많아 노출오버 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적정노출의 이미지

위 이미지의 경우 노출은 적정하지만 플래시를 너무 적게 조사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어두운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물을 예측하기 어렵고 같은 이미지를 두 번 만들기 어려운 촬영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진예술은 경험의 예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요구 되는 촬영법이기도 합니다.



배관의 이미지와 컬러플래시의 적절한 조합으로 완성된 이미지

플래시는 빛이 없는 또는 부족한 광량 하에서 사용하는 보조광이란 라는 상식을 조금 뒤집으면 촬영 장비로서 새롭게 변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시는 것처럼 태양과 같은 캘빈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손 안의 태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촬영법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플래시의 원리를 배울 겸 한번 씩 시도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권영식

(nofilm@nofilm.net)

스튜디오 포토매직 대표 역임
13~18회 서울국제촬영
마라톤대회 공식기록촬영
월간 새보람 '객원기자'

www.nofilm.co.kr

“즐길 줄 아는 삶의 위력”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장 재 권 회장



혈령한 힘합바지에 이어폰을 꽂고 책 가방을 메고 다니는 청소년들을 볼 때나 언제 어디서나 거침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면 솔직히 “저 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다. 우리들이 자라온 환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도 그들의 모습은 너무 즉흥적이고 단순하고 생각의 깊이가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이런 생각은 하나의 기우였다. 봄의 길목, 전 국민을 감동으로 물들인 2010년 동계 올림픽 승전보는 우리나라 젊은 선수들의 솔직하고 당당한 삶의 방식이 일구어 낸 쾌거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동계 올림픽을 보면서 어린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내심 놀랐다. 그리고 메달이 확정되었을 때 감동이나 코치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우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응시하고 춤을 추면서 메달 세리머니를 하는 것을 보며 기특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많았다. 배가 고파도 참아야 했으며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했고,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삭여야 했다.

특히 어른들의 말씀은 공을 팔이라고 해도 믿어야 할 만큼 절대적인 것이었다. 만약 어른들의 말씀을 어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의례히 ‘몸쓸 놈’, ‘불효자’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기 마련이었다. 그런 시대를 산 우리들은 솔직히 기뻐도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지 잘 모른다.

또한 아무리 슬퍼도 겉으로 그 슬픔을 다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스스로를 낮추며 남을 배려하는 깊은 심성은 배웠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처럼 마음껏 끼를 발산하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 2010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서 나는 즐길 줄 아는 삶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동계 올림픽의 여왕으로 등극하며 전 세계인에게 피겨의 여신으로 부상한 김연아 선

수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피겨를 즐길 줄 알았다. 앞서 연기한 일본의 아사다 마오의 경기 점수가 높게 나와 관중석에서 우리와 같은 환호가 나왔지만 김연아 선수는 ‘그정도 쯤이야’ 하는 미소를 지어 보일 만큼 여유로웠다.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았으며 언제 어디서든 자신만만 당돌함이 결국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게 했다.

스피드 스케이팅 500미터에서 모태범 선수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금메달을 따내고 울기는커녕 빙판을 가로지르며 신나게 춤을 췄다. 한국 빙상 역사 102년 만이고 한국의 올림픽 도전 17회 만에 이뤄낸 값진 금메달을 그는 자기 색깔대로 맘껏 즐겼다.

인터뷰를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도 신세 대다운 답변이 이어진다. 기자들이 ‘훈련에 힘들지 않았느냐’,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를 애써 물어봐도 특별하게 눈물을 자아내는 대목은 없다. 그들의 공통된 대답은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

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한다’이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주인공들은 불과 이십대 초반의 나이다.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내며 마음껏 표현하고 즐길 줄 아는 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2010년 동계 올림픽을 통해 알게 됐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열정과 끼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열심히 갈고 닦아 보자. 그리고 마음껏 즐겨보자. 이렇게 즐기는 삶 속에서 발산되는 긍정 에너지는 삶의 목표를 생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박상민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무원)

독자투고

박영일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체력단련실 이용고객)

2008년 4월 1일에 처음 장애인복지관에 왔는데 이제 돌아오는 4월이면 2년 동안의 모든 근무를 마치고 사회복지무원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짧은 2년이었지만 그동안 복지관에서 참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총무기획팀에 속해 있으면서 가장 처음 맡은 일이 복지관 홍보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만져보는 캠코더를 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을 보았는데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행사도 참여했었습니다.

특히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가 가장 큰 행사여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데 당시 저는 작품들을 분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경북만 해도 장애인관련 시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장애인들이 만든 우수한 작품이 넘쳐났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그런 작품들이 비장애인 이상으로 뛰어난 것이 많아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보다 떨어진다는 생각을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지역복지팀으로 이



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복지팀에서는 목욕지원과 온천이용, 재가 방문, 밑반찬 배달 등 총무기획팀에서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장애인들을 만나고 때로는 장애인과 부대끼며,, 처음엔 장애인들을 대하기가 어려워 일이 하기 싫기도 하였지만 돌아보고 나면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일을

사회복무를 마치며

하다 보니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 장애인복지관에 들어 설 때의 두려움과 설레임은 이제 보람과 뿌듯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지만 이제는 문경시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모두들 저마다의 특성이 있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복지관 선생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지관에서 지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가려고 합니다.

저의 2년간 사회복지기간은 제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신 복지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우울증에 시달려 어떠한 일도 하고 싶지 않은 나날을 지내고 있을 때 저에게도 좌절과 우울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같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부



처음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인사도 똑바로 못하던 제가 지금은 명랑하고 쾌활한 목소리로 동료들과 아

침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시간에 식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시는 식당 식구들과

“복지관아 고마워”

터 용인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복지관에 등록을 하고 난 후 복지관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복지관에서 진단을 받으러 오라는 전화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으러 복지관에 내관하는 날에 신입사원 면접을 보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설레었던 마음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복지관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매일 아침을 맞아주시고 깨끗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해 주시는 체력단련실 문정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내 가족 내 부모·형제보다 얼굴을 많이 보고 사는 복지관 직원분들의 작은 친절이 나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관이 여러분들께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4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0년 2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김경희, 김구환, 김유경, 김은경, 김정태, 김진호, 김태우, 김행성, 김환경
남용원, 남혁우, 민속박물관, 박소연, 박솔빈, 박정현, 박종형, 선병욱, 손영주
송 현, 신희원, 양순연, 유유미, 유재복, 윤시현, 윤준오, 이강구, 이민수
이수현, 이운상, 이은정, 이정희, 임진주, 임채종, 전원철, 정상호, 정은연
조태동,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문선, 최옥란, 최인준, 최제훈
황화연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에게는 ‘월간 새보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트

지난 2009년 5월 10일 개최된 제18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난호 정답

★ ¹ 이	정	² 수		★ ³ 아	마	⁴ 존
		채				엄
	⁵ 판	화			⁶ 살	사
	도				구	
⁷ 자	라					★ ⁹ 티
명						베
¹⁰ 고	진	감	래		¹¹ 요	트

당첨자

3월호 정답
아이티

김 정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 영준 경기 여주군 대신면
오 미영 경남 마산시 장군동

| 가로열쇠 |

- 하균의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신출귀몰하는 재주를 가진 의적의 우두머리.
-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나이 든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그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 근세포들이 모여서 된 집단으로 가로무늬근 조직과 민무늬근 조직, 심근조직 등이 있다.
- 사물의 처리에 정하여져 있는 일정한 방식. <운동·오락>바둑에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격과 수비에 최선이라고 인정된 일정한 방식으로 돌을 놓는 법.
- 사병 계급의 하나. 하사의 아래, 상등병의 위로 사병 계급에서 가장 높은 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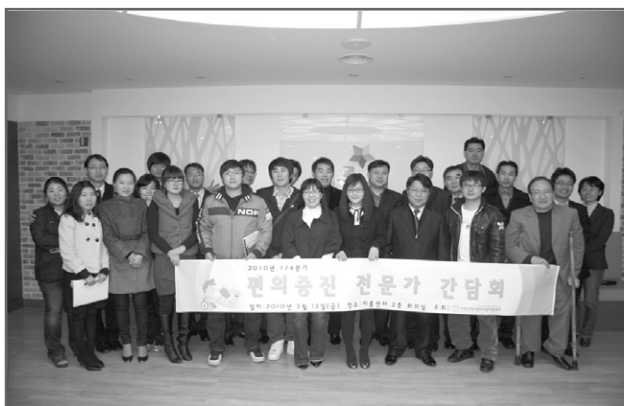
| 세로열쇠 |

-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면서 즐거워하는 날. 4월 1일.
- 수삼을 찌서 말린 붉은 빛깔의 인삼.
- 조선 시대에, 의관(醫官)인 허준이 선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의서(醫書). 동양에서 가장 우수한 의학서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 생김새나 체질, 성질 따위가 외가 쪽을 닮음.
-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이며 현 축구 지도자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흔히 ‘차붐’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 조선 시대 의정부의 으뜸 벼슬. 정일품의 품계로 서정(庶政)을 총괄하는 최고의 지위.
- 개장 또는 개장국이라고 하면 개고기를 고아 끓인 국을 말한다. 여기에서 소고기를 뜻하는 ‘육(肉)’을 덧붙여 소고기를 마친 개장국처럼 끓였다는 뜻으로 쓰게 되었다. 흔히 가운데 ‘개’를 ‘닭 계(鷄)’로 잘못 이해하고 ‘육계장’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 저녁때의 햇빛. 또는 저녁때의 저무는 해.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담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

THE 19TH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Challenge and Overcoming Inspiration of Seoul to the World

2010년 5월 2일(일) 오전 8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주최

KAPPD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SAD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Seoul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AFD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주관

S.I.W.M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서울특별시

KSPF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KOSAD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KBS

협찬

신한금융그룹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301, 3F E_room Center, 22 Yeosadangro, Yongdeungpo-gu, Seoul, 150-917, Korea
E-mail. seouliwm@hotmail.com / Tel. +82-2-2289-4332 / Direct. +82-2-2289-4330 / Fax : +82-2-954-1282
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